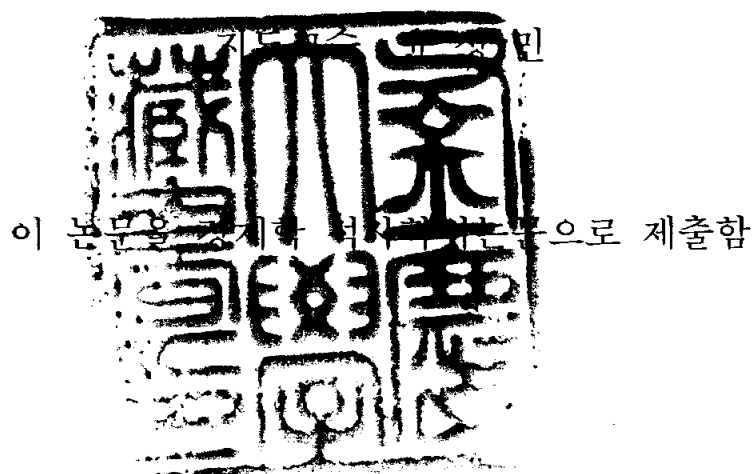


717
201.88
A5
1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도시근로자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전 동 철

전동철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26일

주 심 경제학박사 서 석 흥



위 원 경제학박사 홍 장 표



위 원 경제학박사 윤 성 민



목 차

I. 서 론	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자료 및 방법	
II. 가계부채의 동향 및 발생원인과 소비변동의 원인	5
1. 가계부실의 동향	
2. 가계부실의 원인	
3. 소비변동의 발생원인	
III. 가계특성별 가계부채의 부담정도	23
1. 개념적 모델	
2. 가 설	
3. 연구방법	
4. 분석변인들	
5.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IV.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38
1. 분석방법 및 결과	
2. 가계 부채부담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V. 결 론	46

The Effect of Household Debts on The Consumption Patterns : The Case of Korean City Salary and Wage Earners

Jun Dong Chal

Graudate School of Bussiness,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cent, Korea economy has grown into concerning about the fraudulence of enterprise, finance, household economy. After relieved by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nancial institutions stopped enterprise loan with reconstructing structural regulation and tried to look for seeing new light. Financial institutions started to recommend to get a household loan of money with safety and good from their. According to the booming the household loan and the increase of the loan demand, we gave to changing the pattern of the consumption. however, the excessive household loans caused by the household fraudulence and increased personal credit

disorderly. The increase of credit disorderly came into the increase of the personal bankrupt. Due to fluctuating a consumption, the expanses of consumption were enlarged by the mobility of household and due to relief of interest burden caused by low interest policy, as the opportunity cost rise personal saving intention would be contractional, however, the consumption desire is reaching a climax. The excessive consumption and increase of household debt exchange the propensity to consume. Above a 80 percentage, the household has a debt and it is very possible for household to be restricted a entering the credit market rather than not be used the part of a income. So this possibility takes it's place into the important portion of a economic life using the household debt. and the debt burden of the household has a effect on the restricting consumption behavior. Due to the results, the debt burden takes a disproportional consumption pattern on an item of consumption expenditure. That is to say, the household of many debt burden showed to allot a total consumption expenses between consumption expenditures. We can divide it into two part. One is a strong income resilience(Automobile and eating out expenses etc ..) and another is a not.(housing, heat and light, and water expenses). For each amount debt, consumption expenses are composed inequalitl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경제는 기업 및 금융부실에 이어 가계부문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이후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대출을 중단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안전성과 건전성을 두루 갖춘 가계대출을 금융기관에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가계대출의 붐과 소비회복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98년 하반기 이후 추세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의 급증으로 이자 지급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실업증가, 소득둔화 등 경기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용하는 부채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채를 이용하는 유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혹은 이용하는 부채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간에 가계의 각기 그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때로 부채를 이용한다. 가계 경제 복지측면에서 볼 때 부채는 가계소득처럼 가계에 의해 이용가능한 하나의 경제자원으로 작용하여 부채를 이용하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써 가계는 그 일정기간 동안 갈망하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가계가 원하는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¹⁾

최근 신용시장의 확충에 따라 차입여건이 용이해지면서 가계의 신용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신용의 특성을

1 실제로 2001년 12월 소비의 확대 방안으로 정부에서 특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간은 1년이었으며 이기간 동안 자동차 및 대형 TV 및 고가의 상품들이 소비가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의 돈을 차입하였으며 무분별한 카드의 발급으로 소비의 패턴이 변화 되었다.

고려한 신용이용 행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차입 여건의 용이성과 더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물가 상승, 자산 가격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의 저하는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게 되어 가계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부채 상환 여력이 있다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부채를 사용하는 시점과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신용관리의 미숙이나 과다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수가 2002년 9월 현재 280만 명으로 정부의 신용불량 등록 기준의 강화와 금융기관의 경제적인 영업활동 그리고 가계의 상환능력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신용사용은 더욱 많은 신용불량자를 낳게 될 것이다.

가계 부문의 부실화는 중산층의 붕괴 및 개인 파산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부담으로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 심화 및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동향 및 발생원인을 알아보고,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자료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도시가계조사의 2001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의 거시적 동향 및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한국은행,

한국여신전문 금융 연합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가계수지 항목과 품목별 소비지출 및 부채이용액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국내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자료로 사료된다. 도시가계조사는 1963년부터 매년 통계청에서 도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것으로 표본가구는 전국의 697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약 5,500가구이며 2001년 월평균 조사 가구수는 5,141가구수이다.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통계처리 S/W인 SAS 8.1을 이용하였다.

Ⅱ. 가계부실의 동향 및 발생원인과 소비변동의 원인

1. 가계부실의 동향

(1) 가계대출금 연체금증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 금액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가계 부실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 1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금액은 1조 137억원으로 2000년말의 9,984억원에 비해 무려 13.6%나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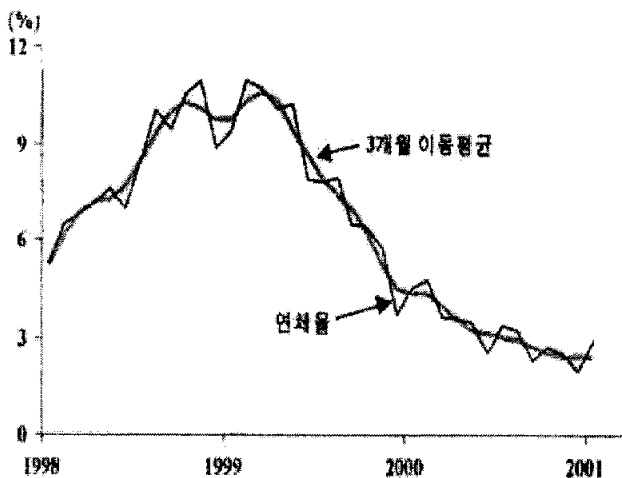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1.99%까지 하락했던 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고유계정 + 신탁계정)을 올 1월말 2.89%를 기록해 0.9%p 높아졌다. 97년 말 3.95%였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상승해 99년 2월중 사상 최고치인 10.9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말 1.99%까지 떨어졌다가 올 1월 들어 다시 상승하였다.²⁾

2002년 1월의 가계대출 연체금액의 급증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전체를 판단하기 성급한 감은 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을 바닥으로 상승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금리하락 추세는 이자비용 감소를 통해 연체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소득감소'와 '실업증가'의 경기침체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연체율 상승압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2 송태정(2001),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LG경제 연구소 정기간행물'.

소득의 원천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연체율은 실업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8%까지 하락했던 실업률이 올 2월중 4.2%로 상승한데다 실업자 수도 다시 100만 명을 넘어 향후 연체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³⁾

<그림1> 은행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주 : 1999년까지는 6개 시중은행(서울, 신한, 외환, 제일, 조흥, 한빛은행) 2000년~2001년 1월까지의 7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외환, 조흥, 하나, 한미, 한빛은행) 자료임
 자료 : 송태정(2000),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분석'에서 재인용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하면서 은행을 통한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점차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금리 하락분에 비례하여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의 혜택은 주로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적용 금리는 변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카드의 대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가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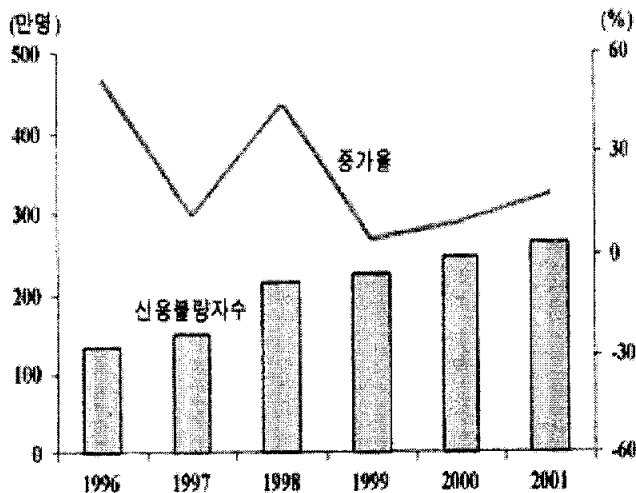
3 한국은행 정책기획국(2002)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pp. 43~45.

문의 실제 조달 금리는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 신용불량자 증가 추세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제재를 받는 신용불량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은행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 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수는 올 3월 현재 264만 명으로 2000년(247만명)에 비해 39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림2> 신용불량자 추이



주 : 2001년은 3월말 자료
자료 : 은행연합회 2001년 "은행경영통계"재인용

신용불량자는 원리금 연체 뒤 3~6개월 후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용불량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용정보 관리 규약을 개정해 올 4월부터 연체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만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⁴⁾

3) 가계부실과 소비자 파산의 상관관계

최근 가계부실지수⁵⁾가 상승세로 반전된 원인은 가계부채의 급증, 실업률 상승, 가계 흑자율 하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금리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보다 수익성 안정성 등에서 유리한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붐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이자 지급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중 3.8%까지 꾸준히 하락하던 실업률이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상승세로 돌아서 올 2월중 4.2%까지 높아졌고 가계의 흑자율도 소득둔화를 반영해 지난해 보다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2000년 들어 가계부실이 상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가계부실지수는 96년 4.3을 기록한 후 98년 2.6까지 떨어져 가계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지난해 4.8로 크게 상승해 91년 경기불황기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일본도 버블붕괴 직전인 90년 5.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97년 1.0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 3.1로 크게 상승 하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가계부실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실지수와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 증가율 간에 뚜렷한 관계를 보이고 최근 부실가계 지수가 가장 높았던 96년 중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는 117만 9천명으로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27.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7년 이후 가계부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 증가율은 98년 8.5%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드렁

4 이우성(2001), "사금융 폐해의 근본해결책,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LG주간경제'.

5 가계부실지수의 구성지표의 구성지표 및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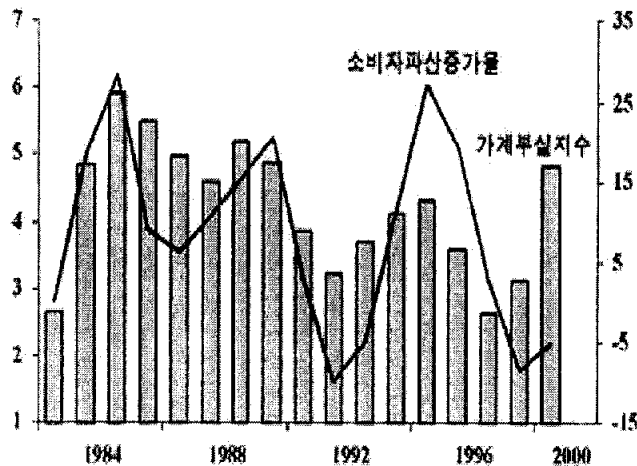
각 구성지표의 구성

- 이자상환비율 = 가계의 부채이자 지급액 / 가계의 가처분소득
- 금융자산 / 금융부채비율 = 가계의 총금융자산 규모 / 가계의 총금융부채 규모
- 흑자율 = (소득 - 소비지출) / 가계의 가처분소득 : 3개월 이동평균
-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계절조정치

가계부실지수 = (표준화된) 이자상환비율 + (표준화된) 실업률
- (표준화된) 금융자산 / 금융부채 비율 - (표준화된) 가계흑자율

가계부실 지수가 크게 상승하여 올해 소비자 파산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있다.⁶⁾

<그림3> 미국의 가계부실지수 및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 증가율추이



자료 : 송태정(2000년),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재인용.

한편 일본의 경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90년대 초 가계부실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도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는 13만 9천 건으로 99년 비해 13.5%증가 하였으며 90년대 초에는 자산가격 폭락, 과소비 신용카드 과다 사용들에 따른 소비자 파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뒤 실직으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파산이 늘고 있어 불황에 따른 실업증가가 소비자 파산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실이 소득감소 실업증가 자산가격 폭락 등 일본의 가계부실의 원인과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의 소비 파산은 미국

6 송태정(2001),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LG경제 연구소 정기간행물', pp. 10~12.

의 "과소비형 파산"보다 일본의 "불황형 파산"의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2. 가계부실의 원인

(1) 가계대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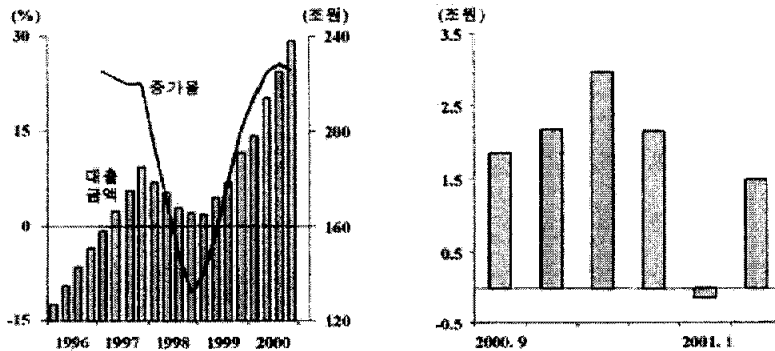
IMF 경제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99년 2/4분기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98년 중 19조 1천억 원 감소했던 가계대출금은 99년 중 25조 1천억 원, 지난해에는 47조 3천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4/4분기 이후 급속한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해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해 올 1월중에는 1,465억원 감소했으나 2월 들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확대경쟁으로 다시 1조 5천억 원 증가로 돌아서고 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공급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적극 확대하는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 안정성이뛰어날 뿐 아니라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유리하다.⁷⁾

수요측면에서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경쟁과 대출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99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승용차 등 내구재 구입 및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등이 크게 늘어났다.

7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기관들은 기업신용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계 금융시장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림4>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 추이 및 가계대출금 증감추이



주 : 가계대출금은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 주택자금 대출금
 자료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2002), "통화신용 정책보고서"재인용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출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운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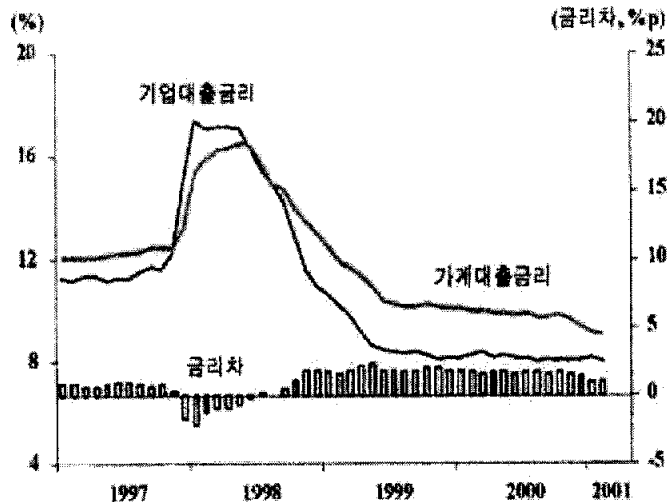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대출은 99년 연간실적의 2배를 크게 상회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신용카드회사(비씨드, LG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 카드, 동양 아멕스카드)의 대출실적은 모두 214조 3천 324억원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들어서도 신용카드 이용은 최근의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9월중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의 증가규모는 현금서비스, 판매신용, 카드론 순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카드를 통한 가계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데 있다.

지난해 금융기관 전체의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중 16.3%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의 영업기반을 신용카드사와 은행이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8 한국은행(2001),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pp. 47~48 .

<그림5>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비교



주 : 예금은행 대출 평균
 자료 : 한국은행(2001),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재인용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은행을 통한 가계의 자금조달비용은 점차 줄어드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 대출의 금리 및 수수료가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보다 훨씬 높아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의 연체 가능성은 은행 보험 등 일반금융기관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 및 보험 등 일반금융 기관으로부터 여신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 경우이거나 급전수요 등으로 대출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는 일반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과는 달리 신용을 매개로 하는 무담보 신용거래이므로 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표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1999년	2000년				2000년 9월말 현재 잔액
		1~9월	1/4	2/4	3/4	
카드이용실적(조원)	5.4	11.2	3.1	3.7	4.3	24.2
현금서비스	2.6	6.7	1.6	2.1	2.9	11.5
카드론	0.8	1.6	0.7	0.5	0.5	4.6
판매신용	2.0	2.9	0.8	1.1	0.9	8.1
카드발급수(만개)	-302	136	379	496	483	5,257
가맹점수(만개)	154	177	43	68	66	796

자료: 한국여신전문금융연합회, 한국은행(2001),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앞으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등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촉진책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의 소액대출 수요 증가 전망, 신용카드사의 공격적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당분간 신용카드업은 높은 신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표 2) 금융기관별 가계일반자금 대출 비중(%) 추이

	1998년 말	1999년 말	2000.6월말	2000.12월말
은행	31.8	41.7	47.4	48.2
은행 신용카드(A)	4.3	4.0	4.8	4.3
저축기관	47.1	36.8	30.0	25.2
보험기관	17.4	16.1	14.8	14.6
신용카드사(B)	3.6	5.4	7.8	12.0
계	100	100	100	100
신용카드(A+B)	7.9	9.4	12.5	16.3

주: 가계에 대한 일반자금대출(개인사업자금 및 주택자금 제외) 저축기관은 은행신탁,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및 체신예금 보험기관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체신보험
 자료: 한국은행(2000), 「조사통계월보」.

(2) 부채누적

최근의 가계대출 붐은 가계부실을 심화시킬 여지가 많다. 가계대출의 급증은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로 나타나 가계부실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며 지난 97년 말 300조 1천억 원이었던 개인부문의 금융부채액은 98년 고금리,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억제 등으로 30조원 감소했으나 99년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2000년 말에는 32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말 부채 330조원은 97년과 98년에 비해 9.8%, 22.1%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내 비 금융부문 총 부채 잔액에서 개인 부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말 9.6%에서 2000년 말 22.5%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3)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및 수수료 현황 (단위: 연%)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리볼빙(Revolving)	카드론	연체료
14.5~19.0	19.8~29.0	일시불 19.0 현금서비스 21.0	9.0~19.0	28~29.0

주: 500만 원 이하 소액론 기준 취급 수수료 제외.
자료: 한국여신 전문 금융연합회 2000년 9월 기준.

개인부채를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금전신탁, 보험 등 제2금융권 차입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1999년 이후의 개인부채 증가는 은행대출금과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표 4) 금융기관별 가계일반자금 대출 비중(%)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은행차입	10.3	9.8	-2.9	23.4	22.5
비 은행 차입	21.1	22.7	-18.5	-6.0	4.9
(신용카드 관련)*	(1.7)	(4.3)	(-2.8)	(3.9)	(14.3)
기타차입**	7.6	13.9	-8.8	5.6	9.2
합계	39.1	46.4	-30.2	23.1	36.6

주: *는 가계신용 통계상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 증감 수치임.

**는 상거래 신용, 정부융자 등.

자료: 한국은행(보도자료 200.10.27)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차입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부부취업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자지급부담 증가

가계부문의 부실화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부채규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부담의 경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이자지급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가계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문에서 이자지급비용으로 39조 9천2백억 원, 한가구당 269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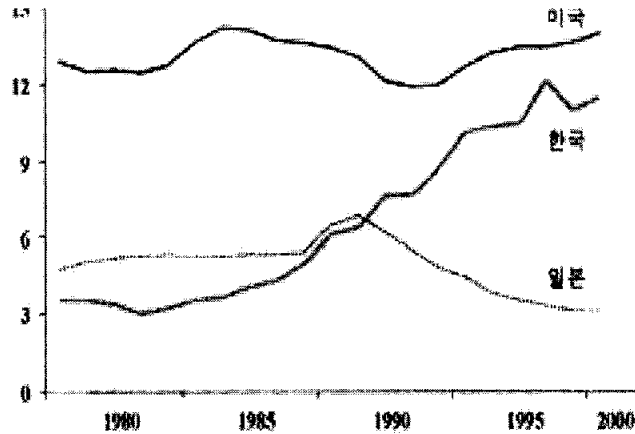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상환비율(Debt-Service Payments Ratio)⁹⁾은 지난 1975년 1.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0년 3.6%, 1990년 6.1%, 2000년에는 11.5%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개인부문의 이자상환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부채부담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만일 각국의 가계에서 똑같이 100만원의 가처분소득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하면, 부채에 대한 이자로 미국은 14만1천원,

9 부채의 부담정도를 분석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자상환비율은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인의 경우 부채이자지급액을 개인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됨.

개인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부채 잔액의 절대규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지출되는 비율에 더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림6> 한·미·일 가계부채의 이자상환율 추이비교



자료 : 송태정(2000),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제인용

일본은 3만1천원을 지불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1만 5천원을 이자로 지불했다는 의미이다.¹⁰⁾

물론 이자상환비율의 과중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이자 상환비율이 누적된 가계부채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문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자지급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가계부문 이자상환 비율이 1980~2000년 중 11~14%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일본의 경우도 3~7% 정도에서 움직여 20년간 변동범위가 1980년~1990년대 초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이자상환비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자 지급 부담은 향후 가계부실화

10 송태정(2001),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참조.

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4) 자산가격의 하락

주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변화도 가계부실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주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산의 명목가치가 확대되고 부채도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부채 잔액이 늘어나더라도 당장에는 가계부실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금융 및 실물자산의 가격의 하락)이 뒤따르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주식과 부동산의 실체가치가 급락하여 가계부문의 자산은 급락하는 반면 이미 늘어난 부채규모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자산 디플레 현상이 발생하면 개인의 순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계부실화가 심화되고 심지어 부채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개인이 급증할 수 있다.

① 주가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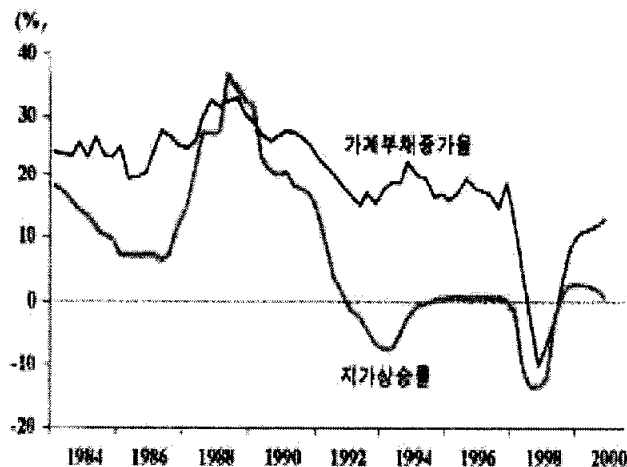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에도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은 가계부실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 변화가 가계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금융자산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로 나타나 34.9%에 달하는 미국보다는 크게 낮고 일본의 7.4%로 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주가폭락으로 금융자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초 종합주가지수의 급락과 함께 코스닥 지수도 동반 급락하였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95%를 넘는 코스닥 시장의 주가 폭락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실화를 심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연초 이후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증가율과 종합주가 지수 간의 관계를 보면 구가가 가계부채에 1분기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이후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주식 투자 자금으로 유입된 점이다. 지난 99년 이후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공모주 청약 유상증자가 있었던 시기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많은 개인들이 주가 하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부동산가격의 하락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자산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과 실물자산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물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될 경우 가계부문의 부실화는 부동산 가격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변화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 가계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가계부채 상환율과 지가상승률 비교



주 : 한국은행 '자료순환계정',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재인용

(5) 경기침체

경기침체는 소득 둔화, 실업증가, 부도율 상승 등을 통해 가계부실화를 심화 시키게 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업황 악화는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뿐 아니라 고용조정, 부도 증가로 이어져 가계소득의 원천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지장에선 주가 하락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본격화 되면서 가계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경기침체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실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경기침체기엔 가계부문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부채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산/부채비율은 하락하게 되고 결국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경기가 불황기에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부채 잔액과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이자 상환비율(부채이자지급액/개인가처분소득)은 높아진다.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와 가계부문의 자금수요 증가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누적된 상황에서 만약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면 가계부문의 부실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3. 소비변동의 발생원인

(1) 가계유동성의 확대

소매 금융시장 급성장 등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제약 완화도 소비지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관행이 기존의 기업금융 중심에서 소매금융 쪽으로 이동 하고 있다.

우선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금리 자유화, 금융 산업 진입제한 완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 등 금융자유화가 90년대 들어 본격화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소매 금융에 치중함에 따라 소매금융 시장이 급성장 하였다. 금융기관들의 소매 금융에 대한 집중도 제고로 2001년 중 가계대출이 원화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8%를 기록하면서 기업대출 비중을 추월하고 있다.¹¹⁾

금년 들어서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집중현상은 지소되어 1/4분기말 현재 원화 대출 중 가계대출의 비중은 전년 말 보다 0.9% 증가한 55.7% 이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화된 전문금융기관 활성화 촉진 등에 따른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도 소매 금융시장 급팽창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변화 소매금융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크게 완화 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시장의 급성장으로 가계의 신용카드 이용액 및 카드론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 5) 가계신용 및 가계최종 소비지출 추이 (전년 동기대비 %)

	97	98	99	2000	2001	2002.3
가계신용잔액	20.9	-13.0	16.5	24.7	28.0	33.3
가계최종소비지출	9.1	-4.9	11.8	10.4	8.4	10.0

주: 명목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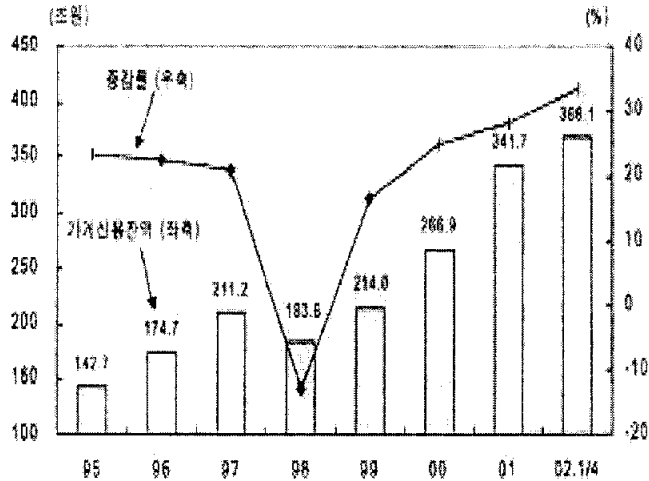
권순우(2002),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CEO Information'.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가계의 소비 지출도 확대 되었으며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99년 이후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11 LG주간경제 2001.7.4일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원노출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가계신용 대출의 확대에 한몫 하였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소액 신용대출이 활성화 되는 것 역시 가계부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림8> 민간저축률 및 민간소비/GDP추이



주: 민간소비/GDP는 명목가격 기준
자료: 권순훈(2002), "가계부채의 급증 및 부작용과 대책" 재인용

(2)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저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도 가계의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소비지출이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99년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가계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담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가계의 이자 부담 완화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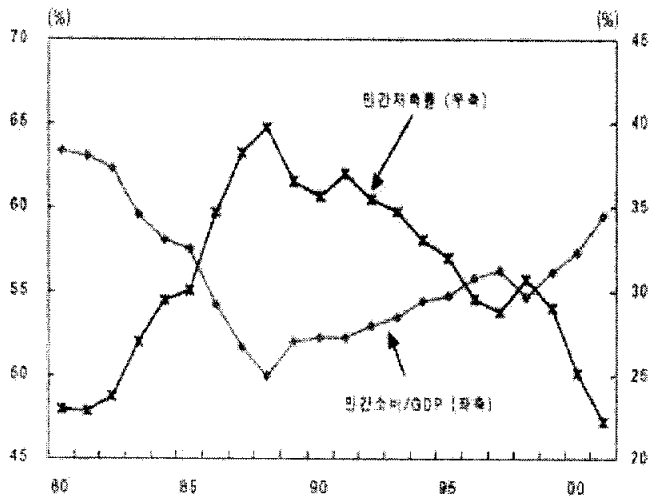
(표 6) 가계신용잔액 및 이자부담추이 (기말기준, 조원 %)

	97	98	99	2000	2001
가계신용잔액	211.2 (20.9)	183.6 (-13.0)	214.0 (16.7)	266.9 (24.7)	341.7 (28.0)
가계대출금리	13.2	12.9	10.1	9.5	7.3
이자부담	27.9 (31.9)	23.7 (-15.0)	21.6 (-8.8)	25.4 (17.3)	24.9 (-1.6)
민간소비	56.3	54.6	56.2	57.3	59.5

자료원: 한국은행 정책기획국(2002),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미래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은 저축의지는 위축된 반면 소비의욕은 고조되고 있다.

<그림9> 가계신용의 차이



자료 : 한국은행 (2000),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재인용.

Ⅲ. 가계특성별 가계부채의 부담정도

1. 개념적 모델¹²⁾

Friedman(1957)의 영구 소득가설과 Hoyt(1938 & 1959)의 소비지출 비목들 간의 상호관계와 균형에 관한 이론이 본연구의 개념적 문제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영구소득 가설에 따르면, 가계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구매되는 소비재화와 용역으로부터 최대의 효용 즉,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이때 가계의 예산은 그 단기간 동안 가계가 획득하는 현재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혹은 평생 동안 기대되는 소득을 기초로 한 기대된 소득(expected income)에 의해 결정된다. 기대된 소득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 즉, 인적자원과 비 인적 자원의 장기적인 예측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가계의 예산은 그 일정시점에서 가계가 획득한 현재소득이나 부채의 정도에 무관하다. 함수관계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U = u(X) \quad (1)$$

$$= u(x_1, x_2, \dots, x_n) \quad (1\text{의 대안})$$

$$x_1 = x(p_{ij}, B, TP) \quad (2)$$

12 심영(1998), "가계부채가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pp. 31~33에서 정리하였음.

$$x_i p_i = e_i \text{ 이므로 } e_i x_i = e(B, TP) \quad (3)$$

$$\sum e_i = EXP \leq B \quad (4)$$

$$B = E(Y) \quad (5)$$

$$E(Y) = E(H, W) \quad (6)$$

여기에서 U 는 일정기간 동안 가계가 획득하는 총 효용, X 와 같은 기간동안 가계가 선택한 총 n 개의 여러 가지 소비재화와 용역의 집합 혹은 묶음, x_i 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선택한 소비재화 혹은 용역 i , p_i 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선택한 소비재화 혹은 용역 i 의 가격, B 는 같은 기간동안 가계의 총 경제자원 혹은 총지출예산, TP 는 가계의 기호와 선호, e_i 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선택한 소비재화 혹은 용역 i 에 대한 지출, EXP 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선택한 총 소비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지출, Y 는 같은 기간동안 가계의 현재소득, $E(Y)$ 는 같은 기간동안 가계의 기대된 소득, H 는 같은 기간동안 가계가 소유한 인적자원, W 는 같은 기간동안 가계가 소유한 비인적 자원(자산)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적 모델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가계예산의 기초가 되는 기대된 소득이 그 일정기간 동안 가계에 들어오는 현재소득에서 저축과 부채상환을 제한 것임을 가정하자. 즉,

$$E(Y) = Y - S - DP \quad (7)$$

여기에서 S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의 저축, DP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의 부채 상황을 나타낸다. 이상에 의하면 어떤 특정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지출은 현재소득, 저축, 부채상황의 정도, 그리고 기호와 선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3)은 (8)의 함수 관계로 나타낸다.

$$e_i = f(Y, S, DP, TP) \quad (8)$$

(6)에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기대된 소득이 인적자원과 비인적 자원에 의한 것처럼,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획득하는 현재소득도 그 가계가 소유한 인적자원과 비인적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즉

$$Y = h(H)^2 + w(W) \quad (9)$$

따라서 (8)은 (10)으로 나타낸다.

$$e_i = g(Y, W, S, DP, TP) \quad (10)$$

이때 비인적 자원 즉 자산은 기대된 소득에 대한 총 비인적 자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¹³⁾ 따라서 (10)을 (11)로 나타낸다.

¹³Friedman(1957)은 가계가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 주의 하나는 예기치 않았던 소득의 감소나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수준으로 소비가 많았을 경우와 같이 긴급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자산이 긴급시의 대비로써 똑같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Friedman에 의하면 인적자산과 비인적 자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소득원(future earning power)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비인적 자산을 근거로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는 총 기대된 소득만이 아니라 기대된 소득에 대한 비인적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W = TA / E(Y)$ 이므로

$$e_i = g'(Y, TA/E(Y), S, DP, TP) \quad (11)$$

여기에서 TA는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소유한 총 비인적 자원을 나타낸다. 둘째 가정은 부채 상환이 그 일정기간에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일정 기간동안 가계의 부채부담은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DP = d(DL) \quad (12)$$

여기에서 DL은 같은 기간 동안 가계의 부채부담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저축은 총 소비지출이 결정된 후에 남은 잔여소득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특정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지출은 현재 소득, 기대된 소득에 대한 자산의 비율, 부채부담의 정도, 기호와 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즉, (11)과 (12)로부터 (13) 또는 (13)대안의 함수 관계로 나타난다.

$$e_i = q(Y, TA/E(Y), d(DL), TP) \quad (13)$$

$$\text{또는 } e_i = q(Y, TA/E(Y), DL, TP) \quad (13\text{의 대안})$$

Hoyt(1938)에 의하면 가계는 그가 소유한 경제자원을 단순하게 여러재화와 용역들의 획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Hoyt는 가계가 선택,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들은 "그것을 자체의 조화와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써 상호연관되어 결합되었다"고 지적했다.(Hoyt, 1938 : 265) 이러한 점에서 Hoyt(1959)는 가계는 소비패턴, 즉 소비 지출 비목들 간에 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한정된 예산을 지닌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화와 용역들의 소비선택 간에 상호연관성과 균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소비패턴에 관한 Hoyt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_i / \text{EXP} = r(B, TP) \quad (14)$$

$$\sum e_i / \text{EXP} = 1 \quad (15)$$

가계예산은 부채부담과 다른 요인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부채부담은 소비자 지출 비목들 간의 예산 할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13)에 대한 (14)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낸다.

$$e_i / \text{EXP} = v(Y, TA/E(Y), DL, TP) \quad (16)$$

이러한 개념적 모델에 의하면 부채부담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부담은 한정된 예산을 소비지출 비목들 간에 할당하는 방식을 변화 시킨다. 이것은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는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가P와는

다른 소비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가 설

본 연구는 부채부담과 각 소비지출비목에 할당되는 예산지출의 몫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부채부담이 어떻게 각 소비지출비목에 할당되는 예산지출을 결정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가게가 안고 있는 부채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현재의 소비를 위한 가게의 효과적인 예산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가게의 행동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소비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이용 가능한 경제자원의 감소는 비 필수적인 즉, 긴요도가 낮은 사치품적인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감소시키지만, 기본적인 필수적인 즉, 긴요도가 높은 재화와 용역을 위한 총 예산지출 중의 몫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의 개념적 모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된다.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부채 부담이 많은 가게의 소비패턴은 부채부담이 많은 가게의 소비패턴은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가게의 소비패턴부담과는 다를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채가 전혀 없거나 혹은 적은 가게와 비교하였을 때 부채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가게는 필수적인 소비지출비목들에 더 많은 예산을, 비필수적이며 사치품적인 소비지출비목들에 예산을 덜 할당할 것이다. 즉,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가게와 비교하였을 때, 부채부담이 많은 가게는 소득탄력성이 낮은 소비지출비에 더 많은 예산지출의 몫을 할당하며,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 비목에 더 적은 예산 지출의 몫을 할당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 통계청에 의해 수립된 2001년 도시가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 전역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계이다. 각 가계에서 한 사람이 가구원으로 규정되며, 가계를 대표하는 가구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주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 명의를 갖고 있거나 전세 및 월세의 경우 임차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가계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가구주를 통해서이다.

2001년 제 1/4분기에서 2001년 4/4분기동안 연속적으로 4분기동안 조사되었던 가계들 즉 조사기간 동안 연간소득 및 연간 소비 지출액을 구할 수 있는 가계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구역은 16개 지역별로 작성된 추출단위 조사구명부에서 지역별 추출률에 의한 각 지역별 표본조사가구수에 따라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수가 균등하도록 크기의 측도와 같은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이중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3개의 인접구역으로 추출하고, 도시가계 조사는 평균 10가구를 기준으로 구역을 분할하여 설정한 후 그중 7개 특별·광역시 및 9개도의 동부 조사구에 대하여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3개 조사구역 안에 포함된 도시가계조사 구역중 구역번호가 빠른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내에서 단독가구, 농가등이 제외된 적격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16개 지역별 표본 추출률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내에서는 1/1.439으로 697개 조사구에서 약 5,500(부적격가구 제외) 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으며, 2001년 월평균 조사가구는 5,141가구이다.

4. 분석변인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7개로 가계의 연간 총 소비 지출액에 대한 11가지의 소비지출비목들 각각의 연간 소비 지출액의 비율들이다. 11가지의 소비지출비목은 가정내의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주택, 기타소비 지출액이다¹⁴⁾. 조세 및 공적자금과 사회보험의 지출은 소비 지출 비목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은 부채부담, 소득, 소득에 대한 자산의 비율, 가계의 기호와 선호를 반영하는 사회적 인구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부채부담은 조사기간 초기에 가계가 가지고 있었던 소비자부채의 크기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채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이나 주택을 위한 담보신용(mortgage credit)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의 담보신용 이용으로 인한 담보부채도 소비자 신용의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부채와 같이 가계에 의해서 상환되어야 하는 고정된 지출을 요한다는 점에서 가계가 경험하는 부채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하겠다. 부채부담은 전혀 없음, 적음, 많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가(dummy)변수로써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를 준거집단으로 사용하였다. 부채부담이 적고 많음은 부채를 가진 가계들의 평균 소비자 부채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소득은 현재소득으로 조사기간 동안 세금을 제하고 난 후의 연간 총수입으로 정의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세금을 내기 전 가계에 들어온 수입보다는 세금을 제하고 난 후의 수입과 더 밀접하게 관계될 것이기 때문이

14 소비지출비목 분류와 각 소비지출비목의 내역들은 한국통계청에서 정의한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다.

(표7)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의 정의 및 범주

변인	정의 및 범주
연령	가구주의 연령(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교육	가구주가 정규학교 교육을 받는 연수
직업	가구주가 획득한 소득중 가장 큰 비중을 제공하는 직업 사무직(공무원,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생산직(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 노무자) 상인(자영업자),개인 경영자, 법인 경영자, 자유업자 기타(무직)
가구의크기	가구의 구성원수
주택의 소유	소유형태
거주지역	한국 통계청에서 저의한 도시화 정도 SMSA: 도시화된 지역1) NOSMSA: 도시화 되지 않은 지역
자동차의 소유	1대소유, 2대이상소유와의 구분

소득에 대한 자산의 비율은 영구소득에 대한 비인간적 자산(조사기간의 초기에 가계가 소유하고 있던 재정자산)의 비율로 정의 하였다.

5.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본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0)과 같다. 평균

가구원수는 3.43명이며 표준편차는 1.0명이었다. 전체가계의 81.17%가 남
성가구주 가계였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4.69세 (표준편차 : 9.3)로
30-40대가 68%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졸이상이 대부분
(약 80%)이며 전체의 60.8%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고 자가를 보유한 가
계가 전체의 59.1%였다. 총 대상 가계와 소비자 부채부담의 수준을 기준
으로 3개의 하위가계들로 분류하여 분석한 조사대상가계 이다. 소비자 부채
부담이 많은 가계들의 평균부채부담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들의
4.2배 이상이었다. 많은 소비자 부채부담은 높은 평균소득(실제적 및 기대
된 소득)과 낮은 재정자산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수준
의 소비자부채부담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자산의 비율과 관
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구성원수가 적은 가계, 도시화된 지역
(SMSA)에 살고 있지 않은 가계, 나이가 많거나 퇴직했거나 교육수준이 높
거나 주택을 미 보유하였거나 자동차가 미소유인 가구주의 가계들은 전형
적으로 소비자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비자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들은 일반적으로 젊고 초대졸 이하인 경우 및
주택의 소유 자동차의 소유(적어도 1대이상)한 자녀가 있는 기혼의 가구주
로 이루어졌으며, 가계의 구성원수가 많고 담보상환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하고 도시화된 지역(SMSA)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체적인 부채보유여부 및 규모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로 성영애 양세정(1994), 최현자(1996), 및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
(1996)등이 있다. 김시범(1993) 문숙제등(1996)은 부채를 공급주체에 따
라 사금융과 공금융으로 나누고 가가각의 보유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도 하였다.¹⁵⁾

15 최현자(1999), "다기간 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pp. 280-282.

2001년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중 2인 이상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62.5만원으로 전년(238.7만원)보다 10.0% 늘어나, 1996년(12.6%)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소득도 2001년중 252,2만원으로 전년보다 5.6%로 증가하였다.

(표9)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소득	2,225	4.3	2,387	7.3	2,625	10.0
근로소득	1,873	3.2	2,009	7.2	2,211	10.1
기타소득	204	13.8	206	1.1	232	12.6

자료: 통계청 "2001년 도시간계 조사"

2001년 중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05,8만원으로 전년보다 9.0%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지출중 소비지출은 175.2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9.6%→8.5%)된 반면 조제, 연금등 비소비지출은 30.6만원으로 전년보다 11.9%증가하여 최근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5.5%로 전년보다 0.9%p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비목별로는 소비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외식비 증가율 둔화(21.1%→8.2%)등으로 전년대비 4.4%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가구 가사비는 에어컨, 냉장고, 보육료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6.0%증가해 소비지출 10대 비목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거비도 월세 및 설비수리서비스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표10) 조사가계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총가계	부채증감액		
		감소	불변	증가
가구구분				
사무직	22.26	11.91	5.9	4.45
생산직	32.92	14.06	14.23	4.63
자영업자	30.2	30.2		
무직	14.62	14.62		
가구원수				
2명	22.32	15.93	4.94	1.45
3명	26.25	17.95	5.96	2.35
4명	37.65	26.98	6.80	3.87
5명	13.77	8.83	2.43	13.77
가구의 연령				
20대	7.34	4.17	2.07	1.11
30대	30.02	20.63	5.45	3.93
40대	31.22	22.34	6.12	2.76
50대	19.24	13.5	4.66	1.08
60대	9.62	7.73	1.7	0.19
70대	2.56	2.42	0.12	0.02
성별				
남	81.17	57.80	15.55	7.81
여	18.83	12.98	4.57	1.28
주택의 소유				
소유	63.61	47.61	10.97	5.03
미소유	36.39	23.18	9.16	4.06
자동차의 소유				
미소유	42.53	29.22	10.71	2.61
1대소유	53.26	38.26	8.95	6.04
2대이상소유	4.21	3.31	0.46	0.44
거주지역				
도시	80.32	56.8	16.37	7.15
비도시	19.68	13.99	3.76	1.94

13.1%로 늘어났으며, 교통·통신비도 핸드폰 및 인터넷 이용자 급증으로 통신비가 크게 증가(28.4%) 함에 따라 전년대비 13.1% 늘어났다.

(표11)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지출 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가계지출	1,731	12.6	1,888	9.1	2,058	9.0
소비지출	1,474	13.5	1,615	9.6	1,752	8.5
비소비지출	257	7.8	273	6.4	306	11.9
평균소비성향	74.9		76.4		75.5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 소득)*100.

자료: 통계청, 2001년 연간 및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수, 직업, 거주지역, 소득수준, 취업자수 및 부채에 대한 태도 등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차용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부채보유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의 방향에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금융자산의 보유액이 적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가를 보유하는 경우 부채를 보유하는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먼저 도시화된 지역(SMSA)의 경우(표14참조) 소비자 부채부담은 자가의 소유와 자동차의 소유에 따라 소비자 부채 부담이 많았다.

(표12)과 같이 비도시에 비해 4.2배나 많으며, 자가인 경우에는 무려 5배나 많은 소비 부채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표13)과 같이 주택의 자가인 경우 3배나 많았으며,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을수록 보건위생을 제외하고는 각 소비지출 비목들의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높았다. 보건위생의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소지자부채 부담이 적

은 가게들이 소비자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많은 가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낮았다.

(표12) 도시 및 비도시간의 가게부채 추이

	합 계(N)	-1(감소)	0(불변)	1(증감)
도시	49,550	35,041	10,099	4,410
%	80.32	56.8	16.37	7.15
비도시	12,139	8,628	2,317	1,194
%	19.68	13.99	3.76	1.94

자료: 도시가계조사 (2001)

소비자 부채부담의 수준에 따른 3개의 하위가계들간의 연평균 소비지출액 차이의 정도는 소비지출비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표13) 주택의 소유에 따른 가게부채 추이

	합 계(N)	-1(감소)	0(불변)	1(증감)
주택있음	39,238	29,371	6,725	3,102
%	63.61	47.61	10.97	5.03
주택없음	22,451	14,298	5,651	2,502
%	36.39	23.18	9.16	4.06

자료: 도시가계조사 (2001)

백분율로 나타낸 소비지출액의 소비지출비율을 보면, 소비자부채부담이 많을수록 식료품(외식비제외), 주거(주택 및 월세 설비 수선포함), 광열·수도, 개인비의 연평균 소비지출 비율들은 낮았다. 반면에 소비자부채부담이 많을수록 기타 교통, 외식비, 가구 및 집기, 외의, 자동차, 교육의 연평균 소비지출비율들은 높았다.

소비자부채부담의 정도에 관계없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예산지출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비지출비목이었다. 가계들은 주택을 위한 소비지출에 총소비지출액의 평균 1/3를 할당하였다. 교통·통신에 대한 예산 지출몫의 경우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들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전혀 없는 가계들 보다 평균 약 7.9배 정도 더 많이 할당하였다.

(표14) 자동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가계부채의 추이

	합 계(N)	-1(감소)	0(불변)	1(증감)
자동차 미소유	26,238	18,023	6,608	1,607
%	42.53	29.22	10.71	2.61
자동차 1대소유	32,854	23,604	5,524	3,276
%	53.26	38.26	8.95	6.04
자동차 2대 이상 소유	2,597	2,042	284	271
%	4.21	3.31	0.46	0.44

자료: 도시가계조사 (2001)

IV.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및 결과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 수록된 전체가계를 부채부담에 따른 3개의 하위 가계들로 분류하였으며, 세 가계집단 사이의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처리 SW인 SAS 8.1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부채부담이 많은 가계의 소비 패턴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가계의 소비 패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부채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소비의 패턴은 소득 탄력성이 강한 것과 소득 탄력성이 약한 것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류를 제외한 소비지출 결과를 놓고 보면 주택의 보유 및 자동차의 보유에 따라서 소비자 부채부담은 소득 탄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 및 일반가구 광열·수도의 경우 소비자 부채부담은 소득 탄력성이 약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을수록 가계는 식비에 덜 할당하였다. 이 경우 소득효과와 관련되는 세 가지 이유가 부적인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능하다.

첫 번째, 소비자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경제자원의 몫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가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몫은 적어질 것이다. 가계소득이나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 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채 부담이 있는 가계가 소득과 가처분 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이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식비를 위한 예산 할당에 부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부채상환이 가계의 예산 지출항목 중에서 융통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가계가 부채상환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싼 식료품을 구입 가능한 상점을 바꾸거나 식습관 식생활수준을 바꾼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지 모른다.

두 번째 만일 부채상환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일시적인 소득변동의 한 형태로 간주 된다면, 소비자 부채부담과 식비를 위한 예산지출 몫의 관계는 Hayes(1989)의 설명과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Hayes는 일시적인 소득 변동의 경우에 소비자들은 현금 부족으로 식비의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식료품이 아닌 소비지출항목들은 신용구매가 가능하지만 식료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용구매를 하지는 않는다.¹⁶⁾

두 가지의 설명을 가지고 부채상환에 의한 소득의 감소로 야기된 부채상환의 부적인 효과를 설명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유들은 생활필수품에 미치는 소득효과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대에 의하면 가계는 식품이나 주거와 같은 생활 필수품에 얼마만큼 할당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소득을 기타 다른 긴요도가 덜한 것이나 혹은 사치품들에 할당한다. 이것은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 최현자(1996)는 부채부담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할 경우 가계는 먼저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비목의 지출을 줄이며 다음으로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즉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가 신용부담의 증감에 가장

16 심영 (1998), "가계부채가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17 최현자(1999), "다기간 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pp. 280-282 참조.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다음이 광열수도비와 주거비 등과 같은 필수재이고 보건의료비와 잡비 및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원감소에 대처하였다.

또한 새로운 신용수요는 총 소비지출과 외식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개인교통 기타소비지출 및 잡비에 대한 지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가계는 필수재적인 성격을 띤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에 먼저 예산을 할당한 다음 선택재에 대한 지출에 있어 현재소득을 이용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규부채를 이용하며 기존에 보유한 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할 경우 먼저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비목의(비 탄력적인 소비지출부분) 지출을 줄이며 다음으로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신용상환으로 인한 자원감소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부채부담과 식비의 예산지출 몫과의 부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세 번째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부적인 관계가 최근 몇 년동안 부채이용에 대한 가계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기간동안의 특소세의 폐지는 소비의 심리를 부추겼고 가계의 소비를 위한 부채이용의 용이한 전망들은 가계로 하여금 실제로 그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는 그의 예산을 식비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소비지출항목들에 할당을 덜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과 광열·수도를 위한 예산지출의 몫들은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 부채부담과 식비의 예산 지출 몫의 부적인 관계를 설명한 첫 번째, 세 번

제 이유들과 유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식비와 같이 주택, 연료, 전기, 그리고 상하수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의 예산 지출몫은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은 가게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적은 가게보다 더 높았다. 두 가지 논리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용회사들로부터 부채 차입시 가게가 직면하는 제약점들은 주로 소득수준에 의해영향을 받는다.

소비자 부채부담이 클수록 가게의 소득은 높았다. 소득이 높은 가게는 비록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채가 많을지라도 빚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용이하게 부채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게가 실제보다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가게 스스로 믿는다면 가게는 아직 상환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동차구매는 특징상 소득 탄력성이 높은 소비 지출 항목이다. (실제로 2000년도에 자가 보유자의 경우 약45%였는데 반해 2001년의 경우 56.0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가게는 현금보다는 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 자동차 대부는 아마도 소비자 부채에 있어 가장 큰 요소이다. 높은 소비자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가게들이 최근에 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것이며 따라서 많은 소비자 부채부담과 높은 자동차 소비지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택, 자동차의 예산 지출몫에 있어서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반면에 소비자 부채부담이 전혀 없음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소비지출비목들에 대한 가게의 소비선택이 가게가 많은 소비자

(표 15) 조사대상 가계의 소비지출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과 소비지출비율

특 성	총 가 계 (N=61689)	부 채 증 감 액		
		감소(n=43669)	불변(n=12416)	증가(n=5604)
총 소비지출	2,270,829	2,293,137	1,875,157	2,973,632
식료품	454,794 (22.48)	458,864 (22.20)	417,615 (24.53)	505,449 (20.11)
주거	5,953,018 (27.86)	617,306 (28.33)	500,129 (28.29)	634,771 (23.26)
광열·수도	91,487 (4.72)	93,773 (4.76)	83,035 (5.01)	92,403 (3.84)
가구집기 가사용품	70,593 (2.45)	66,999 (2.32)	47,089 (2.01)	150,667 (4.47)
피복 및 신발	98,595 (4.16)	97,265 (4.06)	78,046 (3.96)	154,489 (5.38)
보건의료	74,869 (3.22)	76,079 (3.26)	58,407 (2.97)	101,907 (3.49)
교육	193,478 (7.16)	201,681 (7.38)	144,601 (6.31)	237,846 (7.37)
교양·오락	83,682 (3.09)	80,519 (2.97)	55,322 (2.49)	171,155 (5.19)
교통·통신	285,204 (11.63)	274,125 (11.46)	222,898 (11.54)	509,569 (13.22)
기타소비	322,820.59 (13.20)	326,526.1 (13.24)	268,013 (12.86)	415,375 (13.65)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와 소비자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오락 및 문화생활, 보험, 그리고 기타잡비의 예산지출 몫들의 경우, 소비자부채부담이 전혀 없는 가게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적은 가게보다 낮았다. 오락 및 문화생활 보험, 기타 잡비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비목으로 간주되어졌다. 분석결과들은 빚을 이용하는데 대한 가게의 낙관적인 태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적인 소득효과를 보여준다고 본다. 오락, 문화생활, 그리고 기타 잡비는 소비지출이 현금보다는 신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소비지출비목들이다.

2. 가게 부채부담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부채부담이 있는 가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게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부담이 없는 가게는 자발적으로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던 가게라기 보다는 신용시장에서 진입 제한된 가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여신시장/신용시장에의 진입장벽이 없어진다면 거의 모든 가게가 차입을 통해 가게를 영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가게의 부채이용이 경제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채부담이 가게의 소비행동에 대한 하나의 제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지출예산을 감소시킴과 함께 부채부담은 어떤 측정소비 지출비목에 대한 가게의 통제력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

다. 만일 그렇다면 통제 가능한 소비지출비목의 지출은 감소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가게가 자동차로 인해 부채를 안고 있다면 가게는 자동차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을 것이다. 주거 지출은 월세, 담보상환, 세금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보다 작은 규모의(혹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탈바꿈 없이는 감소되어질 수 없는 지출 구성요소들과, 그리고 광열·수도와 같은 통제할 수 있는 지출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만일 예산상에 어떤 압박이 있게 되면 가게는 통제할 수 있는 소비지출 비목들을 감축해야만 할 것이다. 필수적이긴 하지만 식료품(외식비 포함) 번번히, 적은 양으로 구매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료품의 예산상 지출액은 증가하기 보다는 감소될 것이다. 부채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소비를 취해 이용 가능한 경제자원의 감소는 통제할 수 없는 소비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몇몇 소비지출 비목들은 가게의 영구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부채부담은 통제할 수 있는 지출을 더 낮은 수준으로 이끄므로써 결국 소비패턴의 균형을 잃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부채부담의 일종의 대체효과로 간주된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혹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다면 가게의 부채부담과 식비와 같은 필수적인 소비지출비목과의 관계는 상이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즉 소비자부채부담과 식료품비, 주택, 광열수도의 예산 지출 비목들의 상이한 관계들)는 가게의 불균형적인 소비패턴을 가져온 다라는 것이다. 즉 부채부담이 많은 가게의 소비패턴은 부지향적으로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가게의 소비패턴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부담이 많은 경우 부채부담의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으로써 많은 부채부담은 가계의 소비패턴에 왜곡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 복지에 중요한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하였다.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부담은 단순한 소득감소의 결과만은 초래하지는 않는다. 부채상환은 지출상의 특성 즉 가장 우선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융통성이 극히 적은 지출항목이며, 소비지출비목들에 대한 가계의 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히 소득효과만을 고려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사용과 부채상환 관리 교육시 부채부담의 소득 효과뿐 아니라 이러한 부채부담의 대체효과를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패턴의 불균형적인 소비패턴의 변화의 의미들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사용과 부채상환 정책이 생겨 가계의 경제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V. 결 론

가계부채 부실화는 소비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개인 파산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부담으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 심화 및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는 소비 지출 비목들 간에 총 소비 지출을 할당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마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처럼(기대된 소득의 증가) 행동을 보였다.

첫째, 가계 부채의 부담이 많은 가계는 소비지출 비목들 간에 총 소비 지출 비목들 간에 지출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즉 부채 부담이 많은 경우 부채부담의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으로써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로,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을수록 가계의 소득은 높았다. 소득이 높은 가계는 비록 아직 상환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부채가 많을 지라도 부채를 용이하게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가 실제보다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가계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 상환하지 않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같은 소득 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 항목들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것이다.

셋째로 소득 탄력성이 낮은(주택, 광열·수도 등) 예산지출의 몫들은 소비부채 부담이 많은 가계가 소비자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득 탄력성이 낮은 소비지출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지기 때문이다.

즉 빚을 이용하는데 대한 가계의 낙관적인 태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 항목들(교양·오락, 자동차, 기타소비지출 등)은 현금보다 신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러므로 소비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는 임의적인 소비보다는 식료품, 주택, 광열·수도와 같은 비임의적인 소비지출 비목에서 감축 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부채상환은 지출상의 특성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융통성이 극히 적은 지출항목이며, 소비지출 비용들에 대한 가계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가계의 부채부담은 불균형적인 소비패턴을 가져온다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성영애(1996), "도시가계의 부채부담과 추이분석", 「한국가정관리학제 19차 학술대회논문집」, 172-177.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2), 65-77.
- 성영애·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2), 65-77.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최현자·성영애(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계부채문제의 구명", 「한국가정관리학회」, 1(4), 193-207.
- 최현자·성영애(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2.
- 송태정(2001),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LG경제연구소 정기 간행물」.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2002),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pp. 38~45
- 최현자(1999), "다기간 자원 배분 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부담의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79-291.

권순운(2002), "가집채급중의 부작용과 대책", 「CEO Information」, 제 337호

이은미·황인성(2002), "최근의 소비변동 원인 및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정기 간행물」.

Courtless, J.C(1987), "The effect of consumer credit on food expenditures", *Family Economics Review*, March, 22-24.

Douglas,E.(1980),"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 N.M. Ackerman(Ed.),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Interests*,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Hayes, D.J.(1989), "Incorporation credit in demand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 1-20.

Luckett, C.A. & August, J.D(1985), "The growth of consumer debt," *Federal Reserve Bulletin*, 71, 389-401.

Paquette, L.(1986), "Estimating household debt service payments," *Federal Reserve Bulletin of New York-Quarterly Review*, 11(Sumer), 12-23.

Pollin, R.(1988), "The growth of U.S. household debt: Demand-de influ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0, 231-248.

Toal, W.D.(1986/87), "Consumer debt: How severe is the problem?" *Review of business*, 8, 4-9.

Van Dyke, D.t.(1987), "Will debt overwhelm the consumer?"
Business Economics, 22, 41-45.

Wyss, D. & Helferich, A.(1986), "Household indebtedness
and consumer spending," *Data Resources U.S.*
Review, October, 18-21.